



# 자 조 금 소 식



## 제4차 양돈자조금 관리위원회 개최



지난 7월 26일 양돈자조금 사무국에서 개최된 제4차 양돈자조금 관리위원회에서 관리위원들은 FTA 협상 및 미국산 쇠고기 수입, 돼지고기 수입 증가 등 국내 양돈산업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2008년도 양돈자조금 사업계획 및 예산수립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 수립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아울러 양돈자조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8월부터 도별로 시행되는 양돈자조금 대회에서 자조금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한편 지난 6월 29일부터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되어 자조금 수납기관에 대한 징수수수료 지급 기준이 3% 이내에서 5% 이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양돈자조금 수납기관인 전국 도축장에 대해 자조금 납입실적에 따라 징수수수료를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따라서 납입기한까지 완납을 할 경우 5%를 지급하고 납입기한 이후 납부를 할 경우에 대해서는 3%로 차등 지급 할 계획이다.

이날 관리위원들은 또 오는 10월 17일에 개최되는 제2기 양돈자조금 대의원 선거와 관련한 대의원수 배분안을 조정하여 통과시키는 한편, 성공적인 대의원선거를 위하여 지역 대의원 및 농가 교육에 만전을 기울이기로 했다.

## 양돈자조금 핵심사업 중심 편성

2008년도 자조금 사업계획 1차 예산소위 개최



2008년도 양돈자조금 사업은 국산 돼지고기 소비확보를 비롯하여 양돈농가의 피부에 와 닿는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지난 8월 13일 양돈자조금 사무국에서 개최된 1차 예산소위원회에서 위원들은 내년도 양돈자조금 사업이 어느 때보다도 양돈농가들에게 정말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양돈자조금 사업이나 거출금 상향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양돈농가들도 크게 공감을 하고 있으나, 양돈산업에 여러 가지 악재가 있는 만큼 양돈농가에 대한 이해와 설득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위원들은 기존의 일부 소비확보 방법 및 방향 등 기존 사업에 대한 전환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내년도에는 자조금 사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보다 신중하게 사업계획안을 검토했다.

이번 사업계획안은 대한양돈협회와 농협중앙회 양주관단체와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 실무자회의를 거쳐 마련됐으며, 징수수수료, 운영관리비, 예비비 등을 제외하고 현재 예산소위원회에서 심의중인 내년도 순사업 예산안 규모는 114억여원으로 올해 93억원보다 21억원이 증가했다. 2008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안은 오는 9

월 18일에 개최 예정인 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향후 제2기 대의원회에서 승인할 예정이다.

## 양돈자조금 재원확대 방안 분석

한국자조금연구원은 양돈자조금 사업의 일환으로 양돈자조금의 재원확대 방안에 대한 연구를 실시했다. 연구원은 양돈 선진국에서의 자조금 운영체제를 조사하고, 우리나라의 자조금 재원확대 방안을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은 국내에서 생산·유통·도축되는 돼지뿐만 아니라 수입되는 돼지 및 돈육에 대해서도 자조금을 부과 운영하며, 거래되는 종돈 및 자돈은 1회에 한해서 자조금을 부과하고 있다. 영국은 부과금을 용도에 따라 일반부과금과 소비촉진부과금으로 구분해 징수하고 있으며, 도축업자에게도 자조금을 부과해 산업의 주요 이해당사자가 참여토록 하고 있다.

한편 덴마크는 농가와 수출업자에게 모두 자조금을 부과하고 부과율은 국내의 돼지 및 돈육의 수급과 시장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특히 도축 및 가공업자들도 농가와 독립적으로 부과금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호주는 우리나라처럼 자국에서 생산되어 도축되는 돼지에 한해서만 부과금을 징수하고 있으나, 호주 농가 돼지 1두당 부과금 부담률은 돼지 판매액의 약 1.5%로 우리나라의 약 10배에 달하고 있다.

## XTM '도와주십show' 양돈자조금에 기부금 전달

케이블TV XTM의 '도와주십show' 프로그램에서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에 기부금을 전달했다.

이 기부금은 '도와주십show' 프로그램 내 출연자들이 퀴즈를 맞추고 상금을 적립하여 이 상금을 일부 단체에 기탁하는 것으로, 프로그램 관계자는 '이번 방송이 삼겹살을 주제로 해 식당을 장악한 수입 삼겹살 실태와 수입 쇠고기와의 가격경쟁력에서 밀리게 된 국산 삼겹살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 국내 양돈농가의



어려움 등을 다루면서, 국산 돼지고기 소비촉진을 위해 TV광고와 요리법 개발, 다양한 연구사업 등을 하고 있는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에 격려의 뜻으로 기부금을 전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XTM은 CJ미디어가 운영하는 케이블 매체이며, 시사 풍자 프로그램인 '도와주십show'는 인기 연예인 김구라, 지상렬, 올리브밴드(우승민) 세 MC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기부금을 전달한 내용은 지난 8월 24일(금) 오후 11시 50분 XTM에서 방영됐다.

## 일본 후지TV - 현영 출연 국산 돈육 소비홍보 광고 소개



국산 돼지고기 소비촉진 TV광고가 일본 후지TV 전파를 탔다. 일본 후지TV의 한국 엔터테인먼트 정보프로

그램 칸타메(韓タメ)는 일본 시청자들의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의 다양한 홍보대사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현영이 출연하고 있는 국산 돼지고기 소비홍보 CF를 한국어 자막과 함께 방영했다. 이번 방송은 지난 7월 16일부터 2주 동안 후지TV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 방송을 통해 4회 재방송됐다.

## 국산 돼지고기 소비촉진 2차 TV광고 9월 '전파'

탤런트 현영이 출연하여 안심, 등심, 뒷다리살 저지방 부위를 황금부위로 소개하고 있는 국산 돼지고기 소비촉진 TV광고가 9월부터 교체 방영된다.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는 지난 8월 2일 자조금 사무국에서 김건태 위원장 및 김동환 양돈협회장, 농협중앙회 오세관 축산지원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TV·라디오 광고 2차 제작 협의회를 개최하고, 오는 9월부터 새 광고물로 교체하여 공중파 방송에 방영하기로 했다.

2차 광고는 1차 광고와 같이 탤런트 현영이 출연하되 지난 제4차 양돈자조금 관리위원회에서 제시된 '국산 돼지고기는 신선하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국산 돼지고기의 신선한 이미지를 제고하기로 했다.

## 현영·이원종 출연 2차 TV광고 제작



지난 8월 17일 2007년도 국산 돼지고기 소비촉진 2차 TV광고가 촬영에 돌입했다. 2차 TV광고에는 1차 광고에도 출연한 국산 돼지고기 홍보대사 '현영'과 드라마 '쩨의 전쟁'에서 마동포역으로 출연한 인기배우 '이원종'이 함께 출연한다.

새롭게 제작된 광고는 오는 9월 5일경부터 공중파 방송을 통해 방영될 예정이다.

## 07 웰빙맛여행 책자 추가 배부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는 지난 7월말에 발간한 국산 돼지고기 맛집 안내 책자인 '2007년도 웰빙맛여행'을 추가로 제작하여 배부하고 있다.

'2007년도 웰빙맛여행'은 8월초 1만6천부가 추가로 제작되어 최근 이마트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배부됐으며, 이어 전국 하나로클럽과 롯데마트 판매장 등을 통해 배부될 예정이다.

## 양돈자조금관리위 홈페이지 개편 자조금 사업 및 대의원 선거 정보제공 도우미 역할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 홈페이지가 양돈자조금 사업의 일환으로 2007년 9월 1일부터 새롭게 단장하여 오픈했다. 이번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양돈자조금 사업에 대한 양돈농가의 이해를 더욱 원활하게 돕는 한편, 오는 10월 19일에 개최되는 제2기 양돈자조금 대의원 선거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들이 제공되어 양돈자조금 대의원 선거 참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양돈**